

우리나라 원료 잎담배의 생산 및 품질 동향

이종철

한국인삼연초연구원

1. 서 론

15세기부터 인디안에 의해 피우기 시작하였다는 담배는 점차 흡연인구가 증가되어 1999년도 세계 제조담배 생산량이 5조5천5백억본에 달하며, 우리나라도 그 생산량이 1천1십억본에 달하여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다. 세계 흡연인구는 11억4천만명에 달하고 있다(1997). 이와같이 오랜 기간동안 전 세계인의 기호품으로 애용되어 오고 있던 담배는 '90년대에 들어 국내외적으로 담배의 유해론이 제기되면서 담배산업이 위축되리라고 예측되었으나 세계의 담배제조량이 1989년의 5조2천5백억본에 비해 1999년은 5.7%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담배는 전 세계인의 기호품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담배산업에 관련된 외적인 요인으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논쟁이 법정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흡연규제를 위한 국제협약 체결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에는 담배광고 및 판촉활동규제, 담배연기성분 검사방법의 표준화, 포장디자인 규제와 흡연경고문 표시 등이 총망라해 있고, 특수 성분 함량의 표시도 의무화 될 전망이다. 또한 내적인 요인으로서는 담배제조 독점권의 해제 및 공사의 민영화 추진 등은 우리나라 담배산업의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속적인 담배산업의 확대를 위하여는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면서 유해

성 시비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담배 생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 잎담배의 안정적인 공급과 제조담배의 고급화를 위한 원료 잎담배의 생산 및품질 동향분석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원료잎담배의 생산

우리나라 잎담배의 연도별 생산량의 추이는 1970년대 하반기(1975~1979)에 가장 많았고 그후 계속 감소되어 1990년대 하반기(1995-1999)에 가장 적었다. 잎담배 종류별로 보면 총 생산량은 1970년대 하반기에 120,700톤이었으나 1990년대 하반기에는 63,000톤으로 1970년대 하반기에 비해 52%로 감소되었다. 황색종의 경우 1970년대 하반기에 82,000톤에 비해 1990년대 하반기에는 41,900톤으로 1970년대 하반기에 비해 51%로 감소되었다. 한편 버어리종의 경우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1970년대 하반기에 38,600톤에 비해 생산량이 가장 적었던 1990년대 하반기는 22,200톤으로 1970년대 하반기에 비해 57.5%로 감소되었다.

1990년도부터 1999년사이의 연간 잎담배 사용량은 대략 45,000톤으로 같은 기간내의 잎담배 생산량이 55,000~65,000톤 정도로 현재의 경작면적이 유지된다면 원료 잎담배의 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나 엽분별로 생산량의 불균일이 문제 시되고 있다. 잎담배 경작면적 및 경작농가수의 연도별 추이는 잎담배 생산량의 추이와 같은 경향이었다.

호당 잎담배 경작면적은 전 잎담배(황색종+버어리종)는 해가 경과될수록 증가 되었으며 그 증가 정도는 1990년대 하반기에 컸다. 품종별로는 황색종의 경우 1970년대 상반기(1970~1974)에 44.6a이었으나 1990년 하반기에는 110.9a로 1970년대 상반기에 비해 249%로 증가되었다. 버어리종은 1970년대 상반기에 15.7a이었으나 1990년 하반기에는 31.4a로 1970년대 상반기에 비해 200%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호당 경작면적 증가는 기계화 및 잎담배 경작의 전업화라는 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미국에서의 황색종 호당 경작면적이 170~210a에 비해 매우 적은 면적이다.

3. 원료잎담배의 품질

1980년도부터 1999년까지의 잎담배의 화학성분은 니코틴의 경우 황색종, 버어리종 1980년대 상반기(1980~1984)에 각각 $2.72 \pm 0.54\%$, $3.33 \pm 0.15\%$ 이었으며 그 후에 감소되는 경향이었고 특히 버어리종은 1990년대 하반기에 상당히 감소되었다. 황색종의 전담함량도 니코틴 함량과 같은 경향으로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재배법의 개선 또는 기상요인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전질소 함량은 황색종 및 버어리종 다같이 1980년대에 비해 1990년에서 월등히 많아졌으며, 전질소/니코틴의 비도 같은 경향이였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에 들어서 토양에 잔류되고 있는 질소량이 많을 뿐만아니라 경작중에 질소를 다량 사용하여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염소함량은 황색종에 비해 버어리종에서 많았고, 연차간에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화학성분 함량(1990~1999)의 엽분간 차이는 니코틴의 경우 버어리종이 황색종보다 컸으며, 전질소의 경우도 니코틴과 같은 경향이였다. 염소함량은 황색종의 경우 하위엽 일수록 많았으나 버어리종에서는 상엽과 하엽에서 많은 경향이였다. 조회분은 황색종과 버어리종 다같이 하위엽일수록 많았다. 또한 종간에는 모든 동일한 엽위간에는 황색종에 비해 버어리종이 많았다. 반면에 에테르추출물은 하위엽에 비해 상위엽에서 많은 경향이였고, 황색종과 버어리종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우리나라 잎담배는 미국산 잎담배에 비해 엽분간 니코틴함량의 차이가 심하며 에테르추출물 함량이 적고 전질소/니코틴 비가 크다.

품질이 균일한 제조담배의 생산을 위하여는 제조원료인 잎담배의 수매 또는

가공등급별 품질이 균일한 것이 필수적인데, 같은 해에 수확된 동일 등급, 동일 장소에 저장된 가공잎담배의 니코틴, 전당 및 전질소의 변이계수가 각각 심한 경우 22%, 33%, 9%이었는데 비해 미국 황색종은(광주창, 원주창, 신탄진창에서 시료 채취) B4F의 경우 각각 1.3, 4.3, 8.4%, B3K의 경우 18.0, 6.5, 5.7%, B3KR의 경우는 1.6, 6.5, 4.7%로 품질이 균일함을 보인데 비해 우리나라 잎담배는 품질의 균일성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